

形而上詩의 現代性 :

John Donne의 詩를 中心으로

元 應 淳

I

Imagism의 理論家이며 詩人이기도 한 T.E. Hulme는 藝術家나 革新家は 事物의 眞相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습에 찬 慣習과 抽象的 概念의 껍질을 깨고 具象的이고 특이한 體驗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process of artistic creation would be better described as a process of discovery and disentanglement. To use the metaphor which one is by now so familiar with—the stream of the inner life, and the definite crystallised shapes on the surface—the big artist, the creative artist. The innovator, leaves the level where things are crystallised out into these definite shapes, and, diving down into the inner flux, comes back with a new shape which he endeavours to fix. He cannot be said to have created it, but to have discovered it, because when he has definitely expressed [it we recognise it as true.]”

Hulme의 理論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英詩史의 17세기는 John Donne에 의하여 새로운 하나의 흐름을 形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Donne는 英詩에 있어 革新을 일으킨 創造的 革新家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의 英詩의 조류는 文學上으로는 자칫하면 정열과다증에 걸리기 쉬운 主情文學, 즉 대부분의 詩가 이태리에서 Wyatt나 Surrey가 수입해드린 Petrarca(또는 Petrarch) 풍의 전통에 오랫동안 의존하던 인습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답습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詩가 慣習詩라 할 수 있다면, John Donne의 詩는 現實詩라 부를 수 있다. 전자의 詩가 한결같이 主題가 되어 온 사랑의 기쁨과 슬픔, 사랑의 괴로움이나 이별같은 매양 변화없는 現實感이 배제된 “추상의 노래”만을 추구했다고 하면, Donne은 외적 형태에서 판이하게 다르고 詩의 內的構造도 다른 現實感이 충일된 “現實의 노래”, 즉 체험의 알맹이들이 강한 現實의 照明을 받은 “現實詩”를 썼다고 할 수 있다.

H.J.C. Grierson 교수는 Donne의 가장 큰 성취는 “the peculiar blend of passion and thought, feeling and raticination²⁾”이라 했고, T.S. Eliot도 〈Metaphysical Poets〉에서 思想과 感情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Chapman especially there is direct sensuous apprehension [of thought or recreation of thought into feeling, which is exactly what we find in Donne.]³⁾

1) T.E. Hulme, *Specul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4), p.149.

2) H.J.C. Grierson, *Metaphysical Lyrics and Poems of the Seventeenth Centu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9) Intro., xvi.

3) T.S. Eliot, *Selected Essays* (New York: Hercourt, Brace & Co., 1960), p.246.

이와같은 Donne의 詩의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기우리면서 먼저 17세기에 나타난 形而上 詩의 몇가지 特質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Samuel Johnson은 <Cowley> 論에서 처음으로 J. Donne을 中心으로 하는 宗教詩人들을 “Metaphysical poets”란 말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詩的 特質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ut, wit, abstracted from the hearer, may be more rigorously philosophically considered as a kind of ‘discordia concors’; a combination of similar images, or discovery of occult resemblances in things apparently unlike. Of wit, thus defined, they have more than enough. The most heterogenous ideas are yoked by violence together; nature and art are ransacked for illustrations, comparisons, and allusions; their learning instructs, and their subtlety surprises.⁴⁾

Donne의 詩는 Dr. Johnson의 말처럼 形而上的이라는 말만큼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그의 詩의 形而上的 特質은 내용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 보다는 그의 詩의 스타일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體驗에 대한 詩人의 태도를 반영해주는 것이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形而上 詩人에게 있어서 人間의 體驗은 知性的의 방아에 들어가는 곡물과 같다고 할 수 있다.⁵⁾ 여기서 정서와 개념을 결합하는 관계를 찾게 되는데, 그들이 찾는 관계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라 論理的 關係인 것이다. 따라서 추상과 구상, 숭고한 것과 저속한 것, 먼 것과 가까운 것 등 서로 닮지않은 이미지들이 강압적으로 결합되는 듯이 보이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有機的 統一性和 예리한 分析이 形而上 詩人들의 特質들이라고 볼 수 있다.

II

먼저 形而上 詩에 있어서 現代性을 살피기 앞서 形而上 詩와 現代 詩는 어떤 有機的 關係를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긴밀한 관계를 알기위해서 우리는 T.S. Eliot의 理論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Eliot은 Grierson 교수의 形而上 詩人들의 詩의 特質을 정확하게 分析하고 오늘의 現代 詩의 갈길을 指示하고 있다. 앞서 <Metaphysical Poets>에서 언급한 것처럼 17세 시인들은 그들의-感受性이 광범한 知的作用으로 思想을 感情내지 感覺의으로 파악하는 힘, 즉 思想과 感情의 융합으로 事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힘이 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liot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편의 詩를 들어 비교하고 있다. 그것은 形而上 詩의 특질인 思想과 感情이 분열되지 않고 융합된 詩의 局面과 Victoria 朝의 詩의 特質인 “Dissociation of Sensibility”의 局面이다. 먼저 George Herbert경의 <An Ode upon a Question Moved; Whether Love Should Continue Forever?>를 알아보자.

So when from hence we shall be gone
And be no more, nor you, nor I,
As one another's mystery,
Each shall be both, yet both but one.
This said, in her uplifted face,
Her eyes, which did that beauty crown,

4) Samuel Johnson, *The Lives of Poets* (Everyman's Library: 1954), p.9.

5) 趙神權譯, 존·던 詩集, (정음사: 1974), p.164.

Were like two stars, that having fallen down
 Look up again to find their place:
 While such a moveless silent peace
 Did seize on their becalmed sense,
 One would have thought some influence
 Their ravished spirit did possess.

상기 詩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詩인이 사용하는 言語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우아하며 그 意味는 分明하다. Eliot는 이 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There is nothing in these lines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the stars, a simile not at once grasped, but lovely and justified) which fits Johnson's general observations on the metaphysical poets in his essay on Cowley. A good deal resides in the richness of association which is at the same time borrowed from and given to the word "becalmed"; but the meaning is clear, the language simple and elegant.⁶⁾

A. Tennyson<The Two Voices>의 제4연을 살펴보자 .

One walked between his wife and child,
 With measured footfall firm and mild,
 And now and then he gravely smiled.
 The prudent partner of his blood
 Leaned on him, faithful, gentle, good,
 Wearing the rose of womanhood.
 And in their double love secure,
 The little maiden walked demure,
 Pacing with downward eyelids pure.
 These three made unity so sweet,
 My frozen heart began to beat,
 Remembering its ancient heat.

상기 두편의 詩를 비교하면서 T.S. Eliot는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주목할만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The difference is not a simple difference of degree between poets. It is something which had happened to the mind of England between the time of Donne or Lord Herbert of Cherbury and the time of Tennyson and Browning;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llectual poet and the reflective poets. Tennyson and Browning are poets, and they think; but they do not feel their thought as immediately as the odour of a rose. A thought to Donne was an experience; it modified his sensibility. When a poet's mind is perfectly equipped for its work, it is constantly amalgamating disparate experience; the ordinary man's experience is chaotic, irregular, fragmentary. The latter falls in love, or reads Spinoza, and these two experiences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or with the noise of the typewriter or the smell of cooking; in the mind of the poet these experiences are always forming new wholes.⁷⁾

다시 부언하면 Herbert는 形而上 詩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conceit'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6) T.S. Eliot, S.E. pp.244-245.

7) Ibid., p.247.

소박한 묘사로 詩全體의 具體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별(star)'이라는 이미지로 詩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랑의 영원성이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이나 장면으로 정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Eliot는 思想을 장미의 향기처럼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Tennyson이나 Browning의 詩에서는 具體的인 이미지나 장면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Tennyson의 詩에 있어서 사랑의 영원성이 구체적인 이미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론대로 남아있어 詩人の 체험이나 그때 느끼는感性따위는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an Bennett도 Eliot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두 편의 詩는 Tennyson과 Herbert의 詩로 우연하게도 비슷한 見解에 접근하고 있다. 두 시인은 "죽음"의 주제를 다루지만 詩的스타일이나 그 手法이 전연* 다르다.

Thy voice is on the rolling air;
I hear thee where the waters run;
Thou standest in the rising sun,
And in the setting thou art fair.

What art thou then? I cannot guess;
But tho' I seem in star and flower
To feel thee some diffusive power,
I do not therefore love thee less:

My love involves the love before;
My love is vaster passion now;
Tho' mix'd with God and Nature thou,
I seem to love thee more and more.

Far off thou art, but ever nigh;
I have thee still, and I rejoice;
I prosper, circled with thy voice;
I shall not lose thee tho' I die.

(In Memoriam CXXIX)

Death, thou wast once an uncouth hideous thing,
Nothing but bones,
The sad effect of sadder grones:
Thy mouth was open, but thou couldst not sing.

For we consider'd thee as at some six
Or ten years hence,
After the losse of life and sense,
Flesh being turn'd to dust, and bones to sticks.

We lookt on this side of thee, shooting short;
Where we did finde

The shells of fledge souls left behinde,
Dry dust, which sheds no tears, but may extort.

But since our Saviours death did put some blood
Into thy face;
Thou art grown fair and full of grace,
Much in request, much sought for as a good.

For we do now behold thee gay and glad,
As at dooms-day;
When souls shall wear their new aray,
And all thy bones with beautie shall be clad.

Therefore we can go die as sleep, and trust
Half that we have
Unto an honest faithfull grave;
Making our pillows either down, or dust. (Death)

상기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抽象性이 강한 表現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 詩人이 事物을 體驗함에 있어서 感情을 소월히 다루고 주로 理論化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感受性의 分裂은 주로 17세기에서 비롯하여 J. Milton, J. Dryden, A. Pope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T.S. Eliot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향으로 흐르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人間이 科學의 時代에 살면서 사물을 抽象的인 理論으로 표현하는 습관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眞理를 규명하고 事實을 추구하는 方法이 주로 科學的인 용어나 매개로하여 이루어지는 時代에 살고 있음으로 Image나 symbol은 거기에 내포된 함축성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意味를 전달하는 科學的 用語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思想을 科學的으로 抽象化하는 데만 힘쓴 나머지 體驗을 抽象的 用語로 표현함에 따라 이미지나 심볼은 단순히 장식적으로만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 詩人이 체험한 것을 단순히 感情으로만 처리하고 知的關心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 표현은 단지 꿈같이 막연하고 모호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즉 感情을 제어하려면 그 체험을 이미지나 심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지나 심볼은 感情과 知性的의 統一的 受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III

Eliot의 說明처럼 統一된 感受性으로 사물을 체험할 때, 思想과 感情이 혼합되기 때문에 이른바 J.C. Ransom의 表現대로 시에 異質的인 要素가 加味되 '비순수시(impure poetry)'가 된다. 즉, 아름다움과 추함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主觀的인 것과 客觀的인 것이 가미되고 진지한 것과 경박스러움이 융합되어 새로운 하나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그러면 形而上詩人 J. Donne의 시를 몇편 分析하면서 직접 그의 시에 나타나는 現代性을 파악해 보자.

먼저 그의 시 <The Flea>를 살펴보면, 詩人은 한마리의 벼룩을 놓고 엄청나게 커다란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詩人은 그가 體驗한 事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벼룩에게 물리운 詩人은 이렇게 노래한다. 당신(애인)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겠 없는 일인가를 이 벼룩을 보면 알 것이라고 설득한다.

Marke but this flea, and marke in this,
How little that which thou deny'st me is;
It suck'd me first, and now sucks thee,
And in this flea our two bloods mingled bee;⁸⁾

얼핏보기에 황당무제한 이야기 같고 不自然스럽고 非論理的인 內容갈게 보이나, 한편 좀 더 자세하게 分析해보면 不自然속에 自然스러움, 非論理속에 정연한 논리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벼룩 한 마리가 나의 피를 빨아먹고 그대의 피를 빨아 먹었으니 이 한 마리의 벼룩 속에 두 사람의 피가 섞여있고 따라서 이 벼룩은 세 生命을 지니고 있다고 노래한 후 제발 이 벼룩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한다. 그 이유도 정연한 논리이다. 즉 이 벼룩은 나이며 또 그대이고 우리의 침상이 되고 나아가 거룩한 혼례를 거행한 聖殿이기 때문이다.

Oh stay, thay, three lives in one flea spare,
Where we almost, yea more than maeyed are.
This flea is you and I, and this
Our mariage bed, and mariage temple is;
Though parents grudge, and you, w'are met,
And cloystered in these living walls of Jet.

詩人은 獨白의 形式을 취하여 자기 愛人이 바로 눈앞에 있는 양 대화하듯이 설득하고 있다. 이처럼 기발한 이미지 선택이나 사랑의 비유라든지 獨白의 形式, 평범한 詩語驅使등 現代詩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詩〈The Good-Morrow〉를 살펴봐도 그의 特有的 기발한 비유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詩도 獨白이 그 內容이 되고 있다. 詩人은 많은 대화와 많은 비유를 들면서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하여 사랑의 기쁨을 찾는다는 內容을 드러내고 있다.

I wonder by my troth, what thou, and I
Did, till we lov'd? were we not wean'd till then?
But suck'd on countrey pleasures, childishly?
Or snorted we in the seaven sleepers den?
T'was so; But this, all pleasures fancies bee.
If ever any beauty I did see,
Which I desir'd, and got, t'was but a dreame of thee.

And now good morrow to our waking soules,
Which watch not one another out of feare;
For love, all love of other sights controules,
And makes one little roome, an every where.
Let Maps to other, worlds on worlds have showne,
Let us possess one world, each hath one, and is one.

상기 詩에서도 詩人은 形而上學派詩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기발한 비유(conceit)를 사

8) Charles M. Coffin (ed.), *The Complete Poetry and Selected Prose of John Donne*, (New York: Modern Library, 1952), p. 32. Donne의 시 본문은 상기 시집에서 인용되었음.

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즉 제 1 stanza에서 戀人들의 사랑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 戀人들을 젖빠는 어린아이로 비유한다든지 제2 Stanza에서 戀인들이 차지한 방을 宇宙로 비유하면서 新世界를 찾는 당시의 탐험가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詩인이 사랑의 小宇宙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Conceit의 예를 찾아보자. <A Valediction: forbidding mourning>에서는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compass의 두 다리에 비유하고 있다. 女子는 고정된 다리라면 남자의 것은 밖의 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이나 끝내는 고정된 中心으로 돌아오게 된다. 꽤 기발한 conceit라 할 수 있다.

Our two soules therefore, which are one,
Though I must goe, endure not yet
A breach, but an expansion,
Like gold to avery thinnesse beate.

If they be two, they are two so
As stiffe twin compasses are two,
Thy soule the fixt foot, makes no show
To move, but doth, if the' other doe.

And though it in the center sit,
Yet when the other far doth come,
It leans, and hearkens after it,
And growes erect, as that comes home.

Such wilt be to mee, who must
Like th'other foot, obliquely runne;
Thy firmnes draws my circle just,
And makes me end, where I begunne.

<Extasie>에서는, 戀人들의 사랑은 혼합물을 갖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혼합하여 둘을 하나로 만들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게한다고 노래한다. 여기서는 中世紀의 연금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But as all severall soules containe
Mixture of things, they know not what,
Love, these mixt soules, doth mixe againe,
And makes both one, each this and that.
A single violet transplant,
The strength, the colour, and the size,
(All which before was poore, and scant,)
Redoubles still, and multiplies.

그리고 <Relique>를 살펴보자.

When my grave is broke up againe
Some second ghest to entertaine,
(For graves have learn'd that woman-head
To be more than one a Bed)

And he that digs it, spies
 A bracelet of bright haire about the bone,
 Will he not let'us alone,
 And thinke that there a loving couple lies,
 Who thought that this device might be some way
 To make their soules, at the last busie day,
 Meet at this grave, and make a little stay?

상기시에서는 사랑하는 女人이 사랑하는 男子가 죽었을 때 아마 감아주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女人의 금발로된 팔지와 이미 죽은 사람의 백골의 팔과의 뜻하지 않은 기발한 대조는 독자들에게 놀람과 큰 충격을 주는 효과를 지닌다.

상기의 세편의 시에 나타난 Conceit를 G. Williamson의 見解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ne is what we may call the expanded conceit, which is the exposition of an extended comparison; the other is the condensed conceit, which is a telescoped image that develops the thought by rapid association or sudden contrast.⁹⁾

따라서 상기 시의 첫번째 시에 나타난 Conceit는 “expanded conceit”이고 둘째번 시와 셋째번 시들은 “condensed conceit”로서 독자들에게 놀람과 충격을 주는 sudden contrast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Donne의 여러 시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詩人の 二元論的 態度, 同一하지 않은 사물의 기발한 대조법, 機知, 口語體 使用, 그리고 意味의 논리적 전개등을 파악할 수 있다.

IV

John Donne을 中心으로 하는 形而上學派 詩人들과 마찬가지로 現代詩人들도 사물이나 感情을 感情위주로 보지 않고서, 抽象的인 思想도 感覺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感情과 思想이 區分되지 않는 感性的 統一性을 指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詩人이 事物을 파악하는 태도가 二元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形而上詩의 特徵과 現代詩 사이의 有似性이 나타남은 두 時代의 詩에는 統一된 感受性的의 흔적이 存在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T.S. Eliot는 Shakespeare의 <Hamlet>를 논하면서 소위 “objective correlative”(객관상관물)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면서 그 理論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The only way of expressing emotion in the form of the art is by finding an “objective correlative”; in other words, a set of objects, a situation, a chain of events which shall be the formula of that particular emotion; such that when the external facts, which must terminate in sensory experience, are given, the emotion is immediately evoked.¹⁰⁾

Eliot에 의하면 詩人の 정신속에 생기는 많은 정서와 감정은 정신이라고 하는 용기(容器)속에서 용해되고 변형되어 하나의 創作形態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때 그 정서나 감정은 아직 非理性的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詩人은 그때의 정서나 감정에 相

9) G. Williamson, *The Donne Tradition*, (New York: Noonday Press, 1958) p.31.

10) T.S. Eliot, S.E. p.125.

應하는 이미지나 심볼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그 “objective correlative”을 통하여 詩人の 정서와 감정과 맞먹는 정서의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 이와같은 Eliot의 詩論은 그의 “Impersonal Theory of Poetry”(물개성 시론)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Poetry is not a turning loose of emotion, but an escape from emotion; it is not expression of personality, but an escape from personality¹¹⁾

이처럼 詩人の 정서와 감정을 완전히 객관화 할 때에 詩人の 體驗이 함께 결합되어 일종의 “統攝된 感受性”을 나타내게 된다. Eliot가 주장하는 “객관상관물”이론은 E. Pound의 Imagism이론과 역시 흡사한 점이 있다. 그것은 Imagism 이론의 한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Pound는 1913년에 Image를 정의하기를 “Image란 일시에 知的이고 정서적인 복합체를 제시하는 것”¹²⁾이라고 했다. 즉 Pound나 Eliot의 이론은 결국 메타휘(metaphor)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詩 안에서 感情과 思想처럼 이질적인 것이 결합함에 있어서는 metaphor(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다. 비유란 우리의 상상력에 도움을 얻어 두가지 事物을 병치할 때에 성립되어지는 것이지만, T.S. Eliot의 “객관 상관물”의 경우는 단순히 類似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類似한 것을 파악하는 것 이상 어떤 특정한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미지 선택이 문제된다. 그의 이론을 따르면 詩人の 능력이란 가장 異質의인 이미지 사이에 비유나 병치보다는 범위가 넓은 하나의 構造를 設定하는 힘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비유나 병치만으로는 詩的 效果를 높이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와의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이미지와 詩 전체 구조가 상호 협조하여 시적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詩的 理論을 전제하고 Eliot 자신의 詩〈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를 잠시 살펴보자.

Let us go then, you and I,
When 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
Like a patient etherized upon a table;
Let us go, though certain half-deserted streets,
The muttering retreats
Of restless nights in one-night cheap hotels
And sawdust restaurants with oyster-shells:
Streets that follow like a tedious argument
Of insidious intent
To lead you to an overwhelming question...
Oh, do not ask, “What is it?”
Let us go and make our visit.

상기 詩에서 ‘저녁’과 ‘마취된 환자’의 대조는 그것이 백일몽에 빠진 주인공 J.A. Prufrock의 意識이라는 構造속에서만 비로서 커다란 시적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詩作品 안에서 나타난 “객관상관물”이 제시하는 정서와 詩人の 日常生活에서 받는 정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Eliot는 이런 정서들을 ‘art emotion’과 ‘actual emotion’으로 구별하여 ‘art emotion’은 소위 個性이 완전히 배제된 정서 즉 시인의 정신속에서 걸러

11) *Ibid.*, p.21. *

12) T.S. Eliot (ed.), *Literary Essays of Ezra Pound*, (Norfolk: 1954), p.4.

져서 나온 정서이며 'actual emotion'은 個性이 그대로 묻어있는 시인의 日常인 정서라는 것이다.

If you compare several representative passages of the greatest poetry you see how great is the variety of types of combination, and also how completely any semi-ethical criterion of "sublimity" misses the mark. For it is not the "greatness," the intensity, of the emotions, the components, but the intensity of the artistic process, the pressure, so to speak, under which the fusion takes place, that counts.¹³⁾

따라서 詩의 價値도 그 속에 담긴 한 詩人の 個性的인 情緒의 위대성이나 숭고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詩의 구성요소로서의 정서가 서로 융합하여 예술을 이루는 창작과정의 강열성, 즉 서로 짜여지는 정서의 배열, 대조, 균형, 또는 충격에 의하여 조성되는 예술적정서——이들때면 구조적 정서——가 詩의 價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New Criticism 1941〉을 쓴 J.C. Ransom의 경우를 살펴보자.

Ransom은 R.P. Warren이 詩를 '순수시와 비순수시'로 구분한 것처럼 形而上詩에 反對되는 詩들을 Physical Poetry(물질시)와 Platonic Poetry(관념시)로 구분하여 비순시에 해당하는 形而上詩와 대조했던 것이다. Ransom의 이론을 따르면 人間의 경험의 어느 일면만을 다룬 순수시와 대조되는 詩를 Ransom은 形而上詩라 하였으며 이것만이 詩의 理想的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Physical Poetry가 思想을 배제하고 事物만을 담고자 하는 데 비해 詩에 思想만을 주입시키려는 詩를 Platonic Poetry(관념시)라 했다. Ransom에 의하면 美를 體驗하는 찰라적 순수성이 아름다운 것으로 항상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人間의 마음이 항상 可變的이고 다양해서 이미지와 관념만으로는 그 본질을 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Ransom은 詩와 知識에 있어서 T.E. Hulme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科學이란 추상적 편익의 도식인데 반하여 詩란 총체적이고 파기할 수 없는 여러 事物로 이루어진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形而上詩가 人間經驗의 完全한 知識을 전달할 수 있는 詩로 생각했다. Physical Poetry는 너무 寫實的이고 Platonic Poetry는 너무 理念적이어서 무미건조 하지만 '形而上詩는 科學을 보충하고 논의를 개선한다'고 했고 또 '가장 창조적이고 흥미있고 가장 지적인 흥미가 들어있어 다른 데서는 그와같은 것이 없을 것'¹⁴⁾이라 했다.

그런데 Ransom은 이와같은 신비평의 이론의 시발점을 Kant에게서 찾고 있다. 詩論의 가장 완전한 종합이란 Kant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Kant야말로 理性과 感性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적인 기능으로서, 인간을 심미적으로 판단함에 들어서 서로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한 철학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ant의 Critique of Aesthetic Judgment는 Ransom에게 만족스런 시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논리의 美가 하나가 되는" 경지인 "구체적 보편"이란 예술에 가장 적합한 술어를 발명한 공로는 Hegel에게 돌리고 있다.¹⁵⁾

그러면 Ransom의 詩〈Bells for John Whiteside's Daughters〉를 살펴보자.

13) T.S. Eliot, Op. Cit., p.19.

14) R.W. Stallman (ed.), Critique and Essays in Critic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9), p.33.

15) 권명수, 고병려양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연세대 영문과 동창회 : 1976) : 조성규, Ransom의 비평의 궁극적 업적, pp.134-135.

There was such speed in her little body,
 And such lightness in her footfall,
 It is no wonder that her brown study
 Astonishes us all.

Her wars were bruited in our high window.
 We looked among orchard trees and beyond,
 Where she took arms against her shadow,
 Or harried unto the pond

The lazy geese, like a snow cloud
 Dripping their snow on the green grass,
 Tricking and stopping, sleepy and proud,
 Who cried in goose, Alas,

For the tireless heart within the little
 Lady with rod that made them rise
 From their noon apple-dreams, and scuttle
 Goose-fashion under the skies!

But now go the bells, and we are ready;
 In one house we are sternly stopped
 To say we are vexed at her brown study,
 Lying so primly propped.

상기 詩에서는 形而上 詩에서 흔히 추구되는 ‘아이러니’가 발산하고 있다. 한 소녀의 죽음을 애도한 詩로 누구나 이어린 소녀가 죽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죽어서 조용히 누워있으니 주위의 사람들의 이 어린소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추측이 완전하게 어긋나는 데서 ‘아이러니’가 成立된다. 즉 外的 관찰과 현실내부의 事實과의 對立되는 결과에서 생기는 ‘아이러니’인 것이다.

한편 Allen Tate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도 역시 그의 <Tension 詩論>을 예증하려고 John Donne의 <A Valediction: Forbidding Mourning> 중에서 다음 句節을 들고 있다.

Our two soles therefore which are one
 Though I must goe, endure not yet
 A beach, but an expansion,
 Like gold to agery thinnesse beate.

A. Tate는 상기 詩의 논리적 의미는 연인들의 영혼이 비공간적 실체이므로 양자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펍 흥미있는 일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비공간적 실체를 “gold”라고 하는 공간적 비유로 표현한 논리적 모순성이다. 이처럼 무한한 함축적 의미와 유한적 의미사이에서 나타난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이 詩의 원천적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 Tate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Donne의 상기 詩에서 “gold”의 이미지의 分명한 의미 표시는 內延으로써, 이 詩句 전체의 의미를 포함한다. 만일 “gold”의 이미지를 버리면 그 자체를 버리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의미는 전부 “gold”’

의 이미지 속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이다. 外延과 內延은 여기에서 융합되었고, 상호작용하여 詩를 풍부하게 한다.’¹⁶⁾

Allen Tate는 <Three Types of Poetry>에서 ‘첫째 類型的 詩는 동기가 실제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17세기 까지는 도덕적 추상개념이나 寓意같은 경향을 띠었고 근대에 와서는 科學의 영향을 입어 物質的 思想을 담게 되었다. 둘째는 첫번의 유형과 대조되는 것으로 추상관념에 반발을 나타낸 낭만시(Romantic Verse)들이다. 그리고 셋째 유형의 시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詩로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創造精神’이라 할 수 있다.’¹⁷⁾ 라고 설명하면서 셋째번 유형의 시는 思想위주의 시도 아니고 感情위주의 시도 아닌 그 中間形態의 것으로 체험을 분석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파악된 시라는 것이다. Tate는 훌륭한 시의 공통된 특징은 여러 要素의 긴장작용(Tension)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의 <Tension 시론>이다. 그의 <Tension>론도 다시 말하면 Ransom의 신비평이론과 흡사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론들은 한결같이 현대시의 특징으로 17C의 형이상학과 시의 특징을 재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다음 세편의 詩을 비교하며 살펴보자.

a) Thus near the bed she blushing stood upright,
And from her countenance behold ye might
A kind of twilight break, which through the hair,
As from an orient cloud, glimpse here and there;
And round about the chamber this false morn
Brought forth the day before the day wash born.

(Marlowe: Hero and Leander)

b) Sweetest love, I do not goe,
For wearin:esse of thee,
Not in hope the world can show
A fitter Love for mee;
But since that I
Must dye at last, 'tis best,
To use my selfe in jest
Thus by fain'd deaths to dye;

(J. Donne: Song)

c) When Lil's husband got demobbed, I said—
I didn't mince my words, I sad to her myself,
Hurry up please it's time
Now Albert's coming back, make yourself a bit smart.
He'll want to know what you done with that money he gave you
To get yourself some teeth. He did, I was there.
You have them all out, Lil, and get a nice set,
He said, I swear, I can't bear to look at you.

(T.S. Eliot: The Waste Land)

16) Allen Tate, *On the Limits of Poetry*, (New York: Modern Library, 1948), p.84.

17) *Ibid.*, p.84.

상기 세편의 詩를 살펴보면 Marlowe의 詩는 “Twilight”의 metaphor는 독자에게 分明한 現實의 內容을 제시하지 못하고 寫實的 일류존을 파괴해 버리는 역할을 ;도모할 뿐이다. 시인의 Twilight의 Metaphor는 現實照明의 手段으로 쓰이지 못하고 매우 朴約한 口實을 의지하고 단지 詩句의 장식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반면에, J. Donne의 詩와 T.S. Eliot의 詩는 日常口語體의 대화에서 풍기는 現實感의 충일성이 두 시인의 親近感 내지 類似性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두 시인의 詩에서는 Marlowe의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한 現實照明을 받고 있는 것이다.

V

John Donne을 祖宗으로 하는 形而上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였다. 20C에 접어들면서 그의 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몇가지 理由가 있지만 무엇보다 時代的共通點이 크게 作用했을 것이다. J. Donne이 활동하던 17C初 제1차 세계대전이 후의 세계의 상황은 구질서의 파괴로 不安과 不信 및 절망의 물결이 온통 휩쓸던 시대였다. 이러한 고뇌와 불안의 시대를 노래했던 시인이 形而上詩人이었으니 자연 금세기의 같은 상황에 처한 知性人들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17세기와 20세기는 가장 現實詩가 쓰여진 시대이며 동시에 그 정신적 풍토에서도 서로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17세기의 知的狀況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20세기의 狀況과도 거의 들어 맞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과학, 종교, 도덕, 예술, 어떤 분야에서든 主流가 된 것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무제약적인 理性主義와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의 理性과 학문숭배에 대한 반발이었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논리적 사변의 체제와 기독교의 진리를 적당히 요리하여 그들의 理性哲學에 맞추려고 한 신플라톤학과, 신 아리스토텔레스학과, 신스토아학과 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이들 반항자들은 理論이 내세우는 理想과 그들 自身이 관찰한 바의 現實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진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주창하였다.

종교가들은 새로운 신앙과 신의 은총과 계시를 강조하고 과학자들은 관찰과 실험을, 도덕론자들은 향락본능을,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하여 논하는 자는 「事實」과 實用的 經驗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부의 극단론자들은 확실한 지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표방하였다...

이 經驗의 제일 원리에로의 복귀는 여러 가지 형태의 文化的, 科學的, 歷史的, 宗教的, 原始主義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옹호되고 非中央 集權의이고 非綜合的인 개개의 經驗이 강조되어 인식의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 希求되고 지식의 모든 局面을 하나 하나의 종합적인 체제속에 포 함시킬 것이 아니라 제한된 局面만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리하여 「反르네상스(Counter Renaissance)」의 종교가와 신비가는 능동적으로 의지와 사랑과 믿음, 수동적으로 은총과 계시를 강조하였고 과학자는 經驗的 方法에 의지하여 「불투명한 事實」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했으며, 사회, 정치, 도덕, 역사론에서는 人物이나 事件을 취급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事實」을 프래그머틱하게 고찰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理論이 아니고 實際와 事實이, 보편이 아니고 具體가, 思辯的, 理性的, 論理的인 것이 아니고 直觀的, 意志的, 經驗的인 것이 精神의 地

주위에 크게 나타난 것이었다.”¹⁸⁾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시 종합해 보면, 英詩史的으로 17세기는 J. Donne에 의하여 現實詩가 나타나는 시대로 종래의 시들과는 전혀 다른 시가 태동되는 변혁기의 시대였다. J. Donne의 詩를 S. Johnson이 形而上的이라고 할만큼 그의 詩의 特徵을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그의 詩의 形而上的 特質은 內容面에서 보다 그의 詩의 양식(style)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J. Donne의 詩가 종래의 詩人들이 읊었던 단순히 「노래하는 詩」로서가 아니라, 詩의 外的 형태나 內的 構造가 다른 「現實詩」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 서 있다.

그의 연애시를 보더라도 Elizabethan poets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詩의 장식이나, 그리스의 전설이나 신화가 없고, 그 화려한 장미의 화원이나 초원이 없다. 그것은 그의 詩가 연애경험을 현실 그대로 응시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詩語와 對話風의 어조로서 술함으로써 하나의 경험을 「有機的 統一體」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J. Donne의 形而上的 wit는 놀랄만한 그의 발명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극성을 비교하거나 결합하는 지적작용을 뜻한다. 따라서 그의 이런 方法을 통하여 具象性和 抽象性, 感性和 知性, 정서와 사상을 동등하게 병치시키는데 성공했다.

形而上詩의 이런 여러가지 詩의 特質은 현대에 들어와서 곧 現代詩人들이 추구하는 特質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形而上詩의 現代性을 T.S. Eliot의 <물개성 이론>이나 I.A. Richards의 <포괄의 이론>, E. Pound의 <이미지 이론>, Ransom의 <신비평 이론>, 그리고 A. Tate <Tension 이론>등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끝으로 T.S. Eliot의 다음의 글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May we not conclude, then, that Donne, Crashaw, Vaughan, Herbert and Lord Herbert, Marvell, King, Cowley at his best, are in the direct current English Poetry, and that their faults should be reprimanded by this standard rather than coddled by antiquarian affection? They have been enough praised in terms which are implicit limitations because they are “metaphysical” or “witty,” “quaint” or “obscure,” though at their best they have not these attributes more than other serious poets. On the other hand, we must not reject the criticism of Johnson (a dangerous person to disagree with) without having mastered it, without having assimilated the Johnsonian canons of Taste. In reading the celebrated passage in his essay on Cowley we must remember that by wit he clearly means something more serious than we usually mean today; in his criticism of their versification we must remember in what a narrow discipline he was trained, but also how well trained; we must remember that Johnson tortures chiefly the chief offenders, Cowley and Cleverland.¹⁹⁾

경희대학교
수원대학
영어영문학과

18) Hiram Haydon, *The Counter Renaissance* (tr. by Kim, Woo Chang), (New York: 1950), pp. 84-85. 서울대학교 論文集, 제10집, 1964, p. 102에서 인용.

19) T.S. Eliot, E.S. p.250.